

보도시점 2023. 12. 21.(목) 08:00 배포 2023. 12. 21.(목) 08:00

‘로컬100’ 보러 밀양과 통영 지역 현장 ‘로컬로’ 간다

- 12. 21.~22. 유인촌 장관, ‘로컬100’이 있는 지역 방문 캠페인 ‘로컬로’ 첫 참가자
- 내외국인과 함께 ‘밀양아리랑대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로컬100’ 현장 찾아
- ‘로컬로’ 캠페인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밀양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허동식), 코레일관광개발(대표 권신일),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12월 21일(목)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로컬로’ 첫 참가자로서 12월 21일(목)과 22일(금), ‘로컬100’으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가 있는 밀양과 통영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문체부는 지난 10월에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했다.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12. 21. 서울역에서 ‘로컬로’ 캠페인 시작 알려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영상 등 누리소통망에 게시 후 동참자 2명 지명

먼저 12월 21일(목) 오전 8시, 유인촌 장관은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내외국인 50여 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로컬로’ 캠페인 시작을 알린다. 브라질 출신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씨가 이번 캠페인 시작 행사를 진행하고 용인대 국악과 이민진 학생이 축하공연으로 밀양아리랑을 선사한다.

‘로컬로’ 캠페인에는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 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 지명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 100명에게 ‘로컬100’과 관련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로컬로’ 캠페인 첫 번째 참가자인 유인촌 장관은 밀양과 통영을 방문한 인증 영상과 사진을 문체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지인 2명에게 ‘로컬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12. 21. 유인촌 장관, “날 좀 보소” 보러 밀양으로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에서 시작한다. ‘로컬100’에 대한 생활공감형·밀착형 홍보를 과감하게 추진해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로컬로’ 캠페인 첫 방문지로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있는 경남 밀양을 간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1957년 밀양문화제로 출발해 매년 5월경에 열리는 65년 전통의 밀양 대표 축제다. 특히 1년에 한 번 열리는 소비성 축제를 넘어, 영남루, 예림서원, 밀양향교,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등 밀양 곳곳에서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계승하고 있어 밀양에 가면 ‘밀양아리랑’을 365일 즐길 수 있다.

유 장관은 12월 21일(목), 청년문화예술인, 내외국인 등 50여 명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에 따라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내외국인 방문객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지역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2. 22. 유인촌 장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청년문화예술인 만나 지원방안 논의

이어 유인촌 장관은 12월 22일(금), ‘로컬100’으로 선정된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통영의 문화거점 ‘통영국제음악당’을 찾아간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수산업 소도시를 국제적인 클래식 음악도시로 이끈 통영의 대표 음악제다. 특히 통영국제음악당은 클래식 전용 홀을 보유하고 있어, 누구나 지방에서도 품격있는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 장관은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로 청년문화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3 윤이상국제콩쿠르’ 우승자 정규빈 피아노 연주자, 용인대 국악과 이민진 학생, 전통예술 공연기획자이면서 문체부 엠지(MZ) 드리머스(2030자문단)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컨설팅기획사 ‘류’ 박예원 대표 등이 간담회에 참여한다.

특화된 지역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든다

유인촌 장관은 “밀양에서는 밀양아리랑을, 통영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듯이 우리 지역에는 지역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가 많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자, 내외국인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매력자산이다.”라며, “밀양, 통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따로 붙임 1.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캠페인 포스터
 2. 로컬로 캠페인 내외국인 주요 참석자 명단
 3. ‘로컬100’ 브로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관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307)

